

## 전국에 울려 퍼진 '에너지절약'

'전국 피크타임 1시간 에어컨 끄기' 등 행사 다양



기'라는 주제로 이색적인 도전이 시도됐다. 이 도전에는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정두언 국회기후변화포럼 대표, 이태용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염명천 전력거래소 이사장, 김재욱·박정희·남미정·이학영·최현복 에너지시민연대 공

'제7회 에너지의 날'을 맞아 열린 에너지절약 실천운동이 지난 16일 서울광장에서 개막 축포를 쏘아 올리며 일주일간 '에너지 축제의 장'을 열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전국 피크타임 1시간 에어컨 끄기'와 '5분 소등 실천 캠페인', '사람의 힘으로 전기 만들기' 등 다양한 에너지절약 실천운동이 전개돼 국내 대표 범국민 실천으로서, 진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지식경제부와 250여 시민단체는 지난 16일부터 일주일간 서울광장을 비롯해 전국 16개 지역에서 일제히 '제7회 에너지의 날' 기념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예년 평균 서울광장에만 1500명의 시민이 참석하는데 이어 올해는 5000여명을 돌파하는 기염을 보인 이번 행사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부대행사와 캠페인이 행사기간 내내 이어졌다.

행사 첫날인 16일에는 '사람의 힘으로 전기 만들

동대표 등 주요 참석인사를 포함 총 1258명의 시민들이 참여해 2933.15W의 전력을 생산했다.

이 전력은 선풍기 98대를 1시간 동안 돌릴 수 있는 전력량이다. 이로써 시민들의 힘으로 만들어진 2933.15W의 전력은 대한민국 최대기록이 수립되어 기록을 주관한 한국기록원으로부터 인증서를 받았다. 세계 기록은 기네스 본부로 발급 인증서를 보낸 후 추후 이뤄질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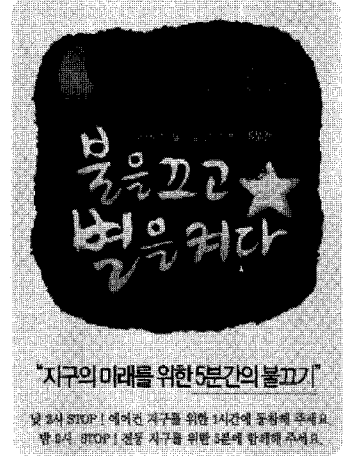
또 이날 오후 2시에는 '전국 피크타임 1시간 에어컨 끄기' 행사가 열렸고 밤 9시부터는 '5분간 소등 실천' 캠페인이 이어졌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 행사를 통해 전국적으로 75만kWh의 전력이 절감됐다.

이는 제주도 인구 전체가 1시간 40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과 같다. 이 같은 성과는 서울광장 주변 120여개 대형건물은 물론 한국전광방송협회의 협조로 대형 전광판들도 일제히 소등했기 때문이다.

포스코 본사와 포항제철소, 필립스전자도 소등에 동참했고 63빌딩, LG 트윈타워, 인천국제공항 등 주요 대형 건물들도 대거 소등했다. YTN 서울타워(남산타워)도 외부조명과 탐신 전체가 소등됐다.

이밖에도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 · 공급자 · 소비자 · 학계 · 정부 · 종교계 등 각계 대표 33인으로 구성된 에너지 독립 인사들은 '에너지 독립선언문'을 채택했다.

또 참석한 기업과 시민단체들은 각 부스에서 에너지전시관과 홍보관을 꾸려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아울러 비보이(B-Boy), 살사댄스팀 등의 에너지 다이어트 댄스 공연과 시민들이 직접 참여한 UCC 공모전, 댄스다이어트 경연대회도 함께 펼쳐졌다.



## 실천하는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시민연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 사회 제안 다섯 가지를 내놓았다. 제안은 2020년까지 온실가스 20%를 감축하기 위해 정부와 가정, 기업에서 실천해야 할 내용을 담았다.

- 1 중앙정부** CO2 감축을 위한 정부차원의 목표설정, 에너지절약과 효율증대를 위한 정부지원 및 관심 증대, 예산낭비적인 도로건설 재검토 및 교통정책 보완
- 2 지방정부** 에너지기본조례 제정 및 추진, 에너지절약·환경친화적인 도시계획 세우기, 무동력 교통수단 증대를 위한 교통정책 추진하기
- 3 가정** 플러그 뽑기 운동, 에너지효율등급이 높은 가전제품 구매하기, 주택 단열과 채광에 신경 쓰기, 심야전기보일러 사용하지 않기, 아이들에게 에너지절약의 중요성을 알려주기
- 4 기업** ESCO 사업 신청하기, 고효율 기기 구매하기, 실내 적정온도 유지하기, 임직원 대상 환경·에너지 교육하기
- 5 상업** 과도한 간판 사용하지 않기, 실내 적정온도 유지하기



### “에너지 절약” 알고 보면 쉬워요. 간단한 것부터 실천 합시다.

자동차 엔진 공회전을 줄이면 매달 기름값 3천3백원이 절약되고,  
형광등 반사판만 닦아도 한달에 전기료 5천4백원을 아낄 수 있다고 한다.  
양변기 수조에 벽돌을 넣거나  
냉장고에 음식을 가득 채우지 않는 것도  
수도료와 전기료를 줄이는 방법이다.\*~\*